

아!

4월

9일

● 강창덕

\*강창덕님은 건국대를 졸업하고 영남일보, 대구매일신문 기자로 일했다. 4월혁명 후 통일운동에 참여, 여러 집회에서 연사로 이름을 날리었다. 5·16쿠데타 때 체포되어 3년을 복역하고 유신반대운동에 참여,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을 복역했다. 현재는 통일연대 고문, 민자통 대구경북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이 해가 가면 내 나이 80! 여태껏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자문하고 자괴한다. 이제는 정신마저 회미해서 지난 날의 기억마저 잘 할 수 없다. 애써 과거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쓴다.

어디엔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뿐이다.

지나간 30년 세월 해마다 4월이 오면 중앙정보부가 고문 조작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희생된 남들의 생각 절절하였지만, 올해 4월 9일 30주 기일에 서대문 형장에서 이슬처럼 운명하신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 하재완, 우홍선,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8명의 열사님을 추모하고 회상하는 심정 유달리 가슴 쓰리고 아프게 한다.

비록 사형은 면했다 해도 8년 또는 9년의 옥고를 치루고 출소한 무기수와 유기수 중에서 고문 후유증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이태환(무기), 류진곤(무기), 정만진(20년), 이재형(20년), 조만호(20년), 전재권(15년)님과, 5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옥사(의문사)한 장석구님에 대한 추모의 정 또한 유별하다.

그때 피신하여 후에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을 조직하고 항쟁하다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옥사한 이재문 열사에 대한 추모의 정 또한 간절하다.

남들의 정신 계승에 부족함이 너무도 많다. 유가족에 대한 봉사활동도 미미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들의 은혜에 조금도 보답을 못해 항상 죄스럽고 부끄럽다.

조지 오글 목사님,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 건강하십니까? 이 분들은 기도회나 반체제 집회같은 모임에서 항상 인혁당 사건은 당

국의 고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그리하여 결국 한국에서 추방당하셨다.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 기독교 목사님, 불교계 스님, 윤보선 전 대통령님, 공덕귀 여사님,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인혁당대책위와 인권변호사님들의 재심청구 협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고문조작사건 결정, 열사님들을 추모하는 정신계승사업을 해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베푸시는 옥중 동지와 후배 동지들의 물심양면의 희생적 노고. 그 외에도 기록해야 할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인다.

사형수 8명 전원, 무기수 7명중 5명, 유기수 9명중 6명, 민청학련 여정남, 남민전 이재문 포함 25명중 서울 지방 5명을 제외 한 20명이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출신들이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조만호는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 위원장, 간사장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었고, 우홍선은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위원장이었고, 이수병은 경희대 학생민족통일연맹(학생민통련) 위원장이었고, 여정남, 이재형, 임구호는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정사회, 정진회)의 주도적 간부였다.

강창덕, 김한덕, 전창일, 이성재, 이태환, 전재권은 사회당 주요 간부였고, 나경일은 노동운동 간부였다. 정만진은 영남대학교(구 대구대) 4·19 주동 학생이었고, 김종대, 이창복, 황현승, 류진곤은 민주화 청년운동을 했고, 장석구는 대구일보, 민족일보 기자였고, 이재문은 영남일보, 민족일보 기자였다.

대다수가 4·19 전후 혁신정당운동, 민족자주평화통일운동,

노동운동, 민족청년운동, 민주학생운동, 민족언론운동 등에 몸을 담고 활약한 투사들이다.

그중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전창일, 김한덕, 이성재, 류진곤,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장석구, 이재문 등은 서울에서,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강창덕, 이태환, 나경일, 전재권,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등은 대구에서 활동하였다.

나 자신은 대구 경북에서 60여년간 반일 통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때문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이후 기타 사건에 연루되었다.

나 자신의 경력을 간략히 기술하는 것은 많은 동지들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되는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이다. 양해 바라고 싶다.

#### ▲ 일제시대

나는 두 번 일제 경찰에 구속당했다.

그 첫번째는 1944년 여름 경산경찰서 하양경찰관주재소에 연행되어 지하 땅굴 구류간(약 1평)에 구금되었다. 구속 사유는 조선조 말기 고종 때 관직에 계시다가 한일합방으로 낙향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자손이었기에 때때로 어깨 너머로 들었던 을미사변, 3·1운동 등 합방 전후 이야기, 그리고 만주 일대 독립군 무장투쟁, 특히 보천보 사건 등 항일투쟁 이야기를 마을 소년들에게 유포시켰다는 것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1945년 8·15 직전 일본 해군 지원병을 강요하는 경찰 지시를 거부, 잠시 도피했다 하여 경산경찰서에 연행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다.

때 안다치는 매(우신매)도 맞아보고, 수일 후에 혼방되었다. 반일감정의 싹이 생긴 것은 수평운동(水平運動), 건국동맹 사건 등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었던 집안 어른들의 영향도 많았다.

#### ▲ 미군정시대

1947년 11월 26일 밤 대구공회당에서의 중앙일보, 세계일보 대구지사 주최 일반 남녀 학생응변대회 사건 때 연사로서 구속되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치안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학교까지 퇴학당했다.

응변 원고 내용이 유엔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단독선거 실시를 결의하여 분단을 획책한다고 비방하고, 통일정부 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한 것이 연합국 비방, 미군정 포고령 위반행위라고 하였다.

그날 밤 대회가 진행중에 경북학련 소속 학생들이 연단을 테러하여 수라장이 되었고, 경찰 출동으로 응변대회는 중도에 무산되었다.

#### ▲ 이승만 독재시대

1952년 2월 5일 경북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반이승만계 서상일(徐相日) 후보와 친 이승만계 배은희(裴恩希) 후보가 다툰 때 서상일 후보의 비서로 핵심적 선거활동을 했다. 이 때 북진무력통일 반대, 남북협상, 평화통일을 찬양한다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었다. 형무소 수감중 서상일 후보가 탄압으로 낙선된 후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1956년 5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때는 평화통일운동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직을 사임하고 진보당 대통령 후보인 조봉암 선생의 경산군 선거사무장을 맡아 경산군과 조직이 없는 청도군, 영천군까지 평화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 제2공화국 장면정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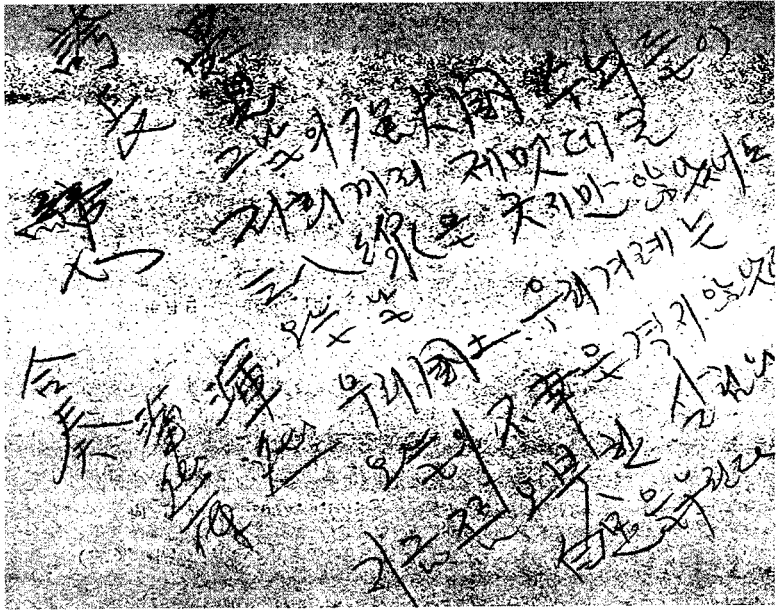
1961년 4월 2일 대구 시내에서 결행한 2대 악법 반대 데모(반공법, 데모규제법 제정 반대)에 참가하여 구속된 후 기소유예로 출소하였다. 이 데모는 당시 대구 경북의 모든 민주운동단체의 공동투쟁이었다.

#### ▲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

첫 번째는 1961년 5월 10일 대구시내 만경관 앞 광장에서 개최된 사회당 경북도당 주최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 연사(사회당 도당 조직위원장)로 나가 궐기사를 하였는데, 5·16 군사혁명재판에서 소급법으로 7년 징역에 3년 복역하였다.

두 번째는 1974년 5월 6일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군법회의 재판에서 중앙정보부가 고문 조작한 민청학련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받았고, 8년 8개월간 복역하였다.

반일 통일민주화 운동에 7차 투옥 약 12년간 복역한 셈이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도 반외세 자주평화통일, 반독재 민주화, 민중생존권 확보운동에 몸을 던지고 싶다.



▲ 상소이유서 뒷면에 남긴 고 하재완 선생의 친필 필적

왜 이렇게 살아온 60년 세월의 반일 통일민주화 운동의 보잘 것없는 역사의 기록을 적느냐? 다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그것은 '인혁당재건위' 라는 중앙정보부의 고문 조작사건에 수많은 나의 동지들이 사법살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를 때 함께 고난을 겪었고, 오늘날 산 증인의 한 사람이 되어 억울한 사건을 일부라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나 자신의 운동경험부터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서도원(청구대학), 도예중(대구대학), 송상진(초등학교) 등은 교직에 있으면서 2·28 및 4·19 학생 민주항쟁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분이 싹뚝고, 4·19후 일본경제시찰단 입국

반대운동 때 영남일보사에서 있던 좌담회에서 도예중(민민청측 대표)과 나(사회당측 대표)는 일본의 경제침략의 서곡이라는 견해일치로 유대가 깊어졌다.

대구공회당 앞 광장에서 있었던 일본경제시찰단 입국반대 집회(공투위 주최)에 연사로 서도원(민민청 대표)과 함께 하였을 때 연설 내용도 별 차이가 없어서 한층 친숙해졌다.

달성공원의 3·1절 통일대집회 및 시가행진 데모할 때 서울 방편의 동지 이외는 전원 참여하였고, 그후 4·2데모 등 각종 집회 및 시위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5·16쿠데타로 대부분 구속되어 합법운동은 잠복하였다.

대구형무소에서 헌병, 보안사 요원의 감시를 받으며 100여 명이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혁신정당, 민자통 등 통일운동단체, 교원노조, 피학살자유족회, 청년단체, 노동단체 등 각 부문 단체의 간부급이 상호 친목 교류를 공고히 하였다. 당시 이들을 ABC 등급으로 분류하여 C급부터 B급까지 순서적으로 석방하고, A급은 서울 혁명검찰부로 이송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민민청 서도원(5년), 교원노조 김문심(무기), 이목(10년) 등, 피학살자유족회 이원식(사형에서 무기), 이복녕(10년), 사회당 류한중(7년), 강대회(7년), 강창덕(7년), 신대영(10년) 등, 통일단체 민자통은 안경근(7년), 안민생(10년), 김성달(10년) 등 그외 다수 사람이 중형을 받고 최하 3년부터 5년, 10년 이상 복역하여 쿠데타의 혹독한 피해를 당했다.

이들은 옥중에서 서로의 운동관점을 정리하고, 출소 후에도



별 이탈없이 다양한 서클 형태로 각 부문운동에 참여하였다.

나는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 하재완, 이재문, 나경일, 정만진, 백정호, 전재권, 조만호, 이태환, 이재형, 임구호, 여정남, 전창일, 김한덕, 우홍선, 이성재, 이수병, 장석구(김종대, 이창복, 황현승, 김용원 제외) 등 21명을 1950년대 후반부터 알고 있었다.

지역 언론계에서 기자로 일할 때 강창덕(매일신문), 이재문(영남일보), 장석구(대구일보)가 서로 교류하게 되었다.

### 대통령 단일후보 운동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 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해 2월 대구에서 ‘반독재재야민주세력단일후보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결성장소는 군방각이었고, 위원장 류시벽, 부위원장 조용만, 대변인 강창덕, 섭외담당 이재문, 운영위원 류한중,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 하재완, 이태환, 전재권, 정만진, 조만호, 나경일, 안민생, 박삼세, 김호일, 도혁택, 김종도, 권오봉, 이복녕 등 약 20명이 참여하여 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친목단결하였다. 이 운동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신민당 경북도당 기타 진보적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전선체 형태로 구성되었고, 당시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로 단일화를 성취하였다.

마지막에는 대중당 서민호 후보까지 사퇴하였다. 이 운동은 대구에서 출발, 중앙무대에서 완결되었다.

## 3선개헌 반대투쟁

1969년 8월 21일 대구시내 현대예식장에서 3선개헌 반대 범 국민투쟁위원회 경북도지부 결성대회에 재야세력에서 연합전선 형태로 참여하였는데, 류한중 대표를 선두로 강창덕, 이재문, 정만진, 백정호,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이태환, 나경일 등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동년 8월 30일 대구시내 수성천 변에서 개최한 '3선개헌 반대집회'에 유진오, 박기출, 장준하 등이 연사로 참여하였고, 가두 시위에 모두 참가하고, 그후 수 차례 시내 반월당 네거리 신민당 당사앞 부근 도로에서 강행한 3선개헌 반대시위에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운동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될 제 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 촉진의 방법으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전략 밑에서 몇 달 전부터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운동을 준비하였다.

그 당시 재야진영의 류한중 대표와 서도원, 도예종, 강창덕, 이재문, 나경일, 송상진, 하재완, 정만진, 전재권, 이태환 등이 수 차례 범어동 '기요고식당'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시내 동성로 대구백화점 7층 717호에 민주수호경북협의회 사무실을 개설하고 민주화운동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결의문도 작성하고 조직

체계도 만들고 운동의 동력 확보에 치중하여 추진해 나갔다.

그때 경북대 학생운동의 지도급 학생인 이재형, 임구호, 여정남, 정화영 등 정진회, 정사회 회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1971년 4월 22일 현대예식장에서 결성식을 거행하고 결의문 채택, 중앙본부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천관우 대표는 <언론의 자유>, 김재준 대표는 <학원의 자유>가 연제였다. 결의문은,

1.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체의 독재에 대결 투쟁한다.
2. 민주공명선거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다.
3. 민주기반 강화를 위한 민중의 역량을 개발 결집하는 선봉이 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간부진 인선도 끝냈다.

대표에 최해청(전 청구대학장), 박삼세(전 경북대 교수, 6·3 투쟁 때 해직), 류한중(재야대표)이었고, 운영위원으로 김중도(노동운동가), 이백희(전 대구시장), 김순택(인권변호사), 강창덕(전 대구매일신문 정치부 기자), 김호일(전 대구일보 편집국장), 서도원(전 청구대 강사), 도예중(전 대구대 강사), 송상진(전 초등 교사), 하재완(전 양조장 경영), 이재형(전 경북대 학생운동), 백정호(학원강사), 우종수(한의원), 나경일(전 제일모직 노조운동), 권오봉(노동운동), 이태환(전 수리조합 직원), 이재문(전 민족일보 기자), 정만진(대구대 4·19학생운동 주도), 도혁택(출판사), 류근삼(청년운동), 임구호(경북대 학생운동), 여정남(경북대 학생운동) 등이 참여했다.

지도위원으로 류한중, 최해청, 박삼세, 김순택, 주병환(전국  
회의원, 신민당 도지부장), 실무진으로는 총무위원장 강창덕, 선  
전겸 대변인 이재문, 청년위원장 정만진이였다.

1971년 4월 26일에는 결의문 2항 '민주공명선거를 위해 총  
력을 경주한다' 를 실천하기 위해 '민주수호경북협의회 공명선거  
감시단' 을 조직하여 부정선거를 감시하기로 하였다.

신민당 경북도지부와 협의하여 경산군 각 투표소에 참관인  
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형버스 1대에 45명의 회원이  
경산 신민당에 도착하여 신민당 군당과 협의, 군내 1읍 10개 면  
에 회원들을 배치하고 다음날(27일, 선거일) 아침 투표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 투표 마감시간까지 부정투표 방지를 위해 과감한  
활동을 하였다.

몇몇 투표소에서는 공화당측 깡패들과 싸우기도 하였고, 투  
표 당일 각 투표소 순찰임무는 이재문 선전 및 대변인이 담당하  
였다.

기억나는대로 적으면 도예종(투표소명 미상), 강창덕(하양  
제1투표소), 나경일(고산면 모 투표소), 이태환(압량면 방면), 송  
상진(와촌면 방면), 하재완(자인면 방면), 전재권(안심면 방면),  
정만진(남천면 방면), 서도원(진량면 방면), 백정호(와촌면 어느  
골짜 투표소), 권오봉(하양면 모 투표소) 등등이다.

30여개 투표소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당시 서류는 위수  
령 발동후 사무실을 폐쇄하여 강창덕 총무위원장이 보관중 긴급  
조치 사건 때 가택수색을 당하면서 압수되었다.

## 지하신문 「참소리」

1974년 2월 이재문, 나경일, 강창덕, 백정호는 유신반대를 위한 선전물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제호를 「참소리」로, 논단은 「진실로」로 하였다. 기사는 주로 각 대학의 유신반대 데모 소식과 선언문 등을 실었다. 논설은 이재문, 강창덕, 서도원, 도예종 등이 담당하였다.

인쇄는 등사판이었고, 배포는 대구시내 중앙통을 경계로 동쪽은 나경일, 서쪽은 강창덕이 맡아 새벽 신문배달 시간대를 이용하고, 지문 방지를 위해 고무장갑을 끼었다.

초판 준비, 완료, 실행 직전에 정보 누설로 유보중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여 모두 구속당해 중단되었다.

1974년 1월 경 이재문, 강창덕, 나경일은 유신반대 전선조직을 결의하고, 이재문은 학계, 강창덕은 언론계, 야당 정치인, 나경일은 노동계를 대상으로 활동 분야를 정하였다.

강창덕과 접촉한 야당인사와 언론계 인사중에 보통군법회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인사는 김인갑(신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김재홍(신민당 대구남구당 부위원장), 홍종흠(매일신문 기자) 등이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등은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유신반대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고, 그 외의 많은 인사들이 암암리에 유신반대 사업을 감행하여 수사당국의 감시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대구지방의 정세는 박정희 군사독재 세력에게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저항세력의 본산이라고 지목당해 증오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신반대 투쟁전선에서 고문 조작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숨겨져 있는 역사적 사유라고 하겠다.

아, 4월 9일이여  
가신 님들의 명복을 빌면서